

“홀로 고통 견디는 이들 없게...동반자 되고파”

이영희광주 남구가족센터 사례관리사

“우리 사회의 위기가족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적 사례관리사’가 되는 게 목표예요.”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해 회복을 돕는 사례관리사인 이영희(46·여·사진)씨는 4일 차분하지만 힘 있는 어투로 말했다.

이씨는 광주 남구가족센터 ‘온가족보듬팀’에 소속돼 있다.

이 팀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경계선지능아동 등 가족 기능과 역량이 필요한 일반사례대상자와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에 처한 가족을 돕는 긴급위기지원대상자로 나눠 가족상담부터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팀은 이씨를 포함해 4명의 사례관리사와 1명의 가족상담사로 구성돼 있다. 현재 총 91가구

취약·위기 20가정 이상 지속 관리

어린이집 14년 근무 후 재직년 이직

장애인복지관·수어 통역 등 봉사도

“공공·민간 연계 가족 돕는 일 뿌듯”

를 관리하고 있어 관리사 1명당 매일 살펴야 하는 가정이 20가구가 이상이다.

고등학생때부터 봉사활동 경험을 쌓은 이씨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행복감을 느껴 사회복지학과로 진학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14년간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다. 그 기간에도 교회나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다 2021년 6월 ‘처음 꿈꿨던 사회복지 일에 다시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남구가족센터 온가족돌봄팀 사례관리사로 이직했다.

온가족돌봄사업은 학교 등 기관의 의뢰를



해당 아동에게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했고 부모 상담을 병행해 훈육 방식과 의사소통 방법을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또 지역 내 각종 복지제도 등 정보를 연계해 장기적인 변화를 도모했고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점을 파악한 뒤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 개선도 함께 이뤄갔다.

그는 “생활환경까지 바꾼 뒤 아기가 눈에 띄게 밝아지고 감동이 줄었음을 확인했을 때 정말 뿌듯했다”며 “가족 전체의 기능 향상을 이끌었

다는 점에서 특히 보람찬 경험이었다”고 소회했다.

이씨는 사회복지직을 직업으로 삼으면서도 남은 시간을 쪼개 수어를 배우고 관내 소재 교회를 다니며 청각장애인들의 소통을 돕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수어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보여주면서 “아직 숙련된 단계는 아니지만, 청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는 중”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영희씨는 “앞으로도 온가족보듬팀에 꼭 필요한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홀로 고통을 견디는 이들에게 일회성 지원에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례관리사로서는 대상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직업 외적으로도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형우기자

고은정 전남대어린이병원 전공의 제69차 소청과 전문의 시험 ‘수석’



고은정(사진)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시험에서 전국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4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고은정씨는 지난달 3, 10일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 제69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전남대어린이병원의 탄탄한 수련 시스템과 교육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로 평가된다.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02년, 2005년,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4차례나 전문의 시험 수석 합격자를 배출했다.

최근 저출산 심화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 등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거둔 결실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고 병원은 전했다.

고은정 전공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좋은 성적으로 수련을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소아 환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보호자들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수희기자



동강대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성료

동강대가 오는 4월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2026학년도 신입생 1천121명을 맞이했다.

4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전날 본관 5층 나이팅게일홀에서 ‘2026학년도 제5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특히 외국인 학생 100여명이 입학하며 글로벌 다문화 인재 양성 선도 대학으로서 발돋움을 한 발 더 내딛었다.

외국인 신입생들은 ▲AI미래로빌리티과 ▲AI미래자동차과 ▲AI융합전기과 ▲K-뷰티아

트과 ▲건축학과 ▲글로벌비즈니스과 ▲글로벌의식조리제빵과 ▲글로벌한국어학과 ▲작업치료과 등 다양한 계열의 9개 학과에서 역량을 쏟는다.

이민숙 총장은 축사에서 “지난 반세기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동강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꿈꾸게 됐다. 최첨단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최고 수준의 슈퍼 테크 니션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베이스 캠프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광주 남구 동지사협-이사금치과의원 ‘치과 진료’ 맞손

광주 남구 동지사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이 사금치과의원과 치과 진료 업무협약을 체결, 소속 위원들을 위한 의료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구에서 활동하는 540여명의 동지사협 위원과 그 직계가족들은 전문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김용준 이사금치과의원 원장은 “현장에서 주

민의 삶을 돌보는 위원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위원들이 건강한 미소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덕근 남구 동지사협 대표회장은 “이번 협약이 위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민·관 협업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형우기자

(사)코코넛, 박남은 후원자 가족과 후원 협약

국제 NGO 단체인 (사)코코넛(대표 양구진)이 서아프리카 16개국(가나·토고·코트디부아르·세네갈·감비아·중앙아프리카공화국·카메룬·가봉·말리·부르키나파소·콩고민주공화국·콩고공화국·시에라리온·베냉·기니·라이베리아)과 컨소시엄을 통해 스포츠, 인권 인성교육,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하며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코코넛은 지난 1일 코코넛 사무실에서 박남은 후원자 가족과 협약을 체결했다.

박 후원자 가족은 코코넛을 통해 5개국에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박 후원자는 가봉·세네갈·중앙공화. 아내인 김현정 후원자는 콩고공화국을, 딸인 박세린 학생(고3)은 말리를 각각 후원한다.

박남은 후원자는 “열악한 아프리카를 후원하는 것 같지만, 부메랑이 돼 나에게 돌아오는 행



복감이 커서 온 가족이 함께 후원을 시작한 지 오래다”며 “특히 후원에 동참한 막내딸 세린이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인드’를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윤정 코코넛 상임이사는 “박남은 후원자가 축처럼 많은 이들이 나누면서 누리는 행복을 맞보게 되길 바란다”며 감사를 표했다. /박희중기자



순천원예농협, 전체 조합원에 비료 무상 지원

순천원예농협은 4일 “치솟는 영농 자재비로 시름하는 지역 농가를 위해 전체 조합원 861명에게 원예작물용 비료 총 8천537포를 무상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료 지원은 전년도 사업 이용 실적(200만원 기준)에 따라 12포와 7포를 차등 지급하는 ‘맞춤형 핀셋 지원’을 적용해 성실한 조합원에 게 더 큰 혜택을 돌려주며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했다.

비료를 전달받은 한 조합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비료 구입비가 큰 부담이었는데, 직접 지원해주니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채규선 조합장은 “고물가 파도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곳곳에 팍팍음을 흘릴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파제가 돼주는 것이 농협의 진짜 존재 이유”라며 “앞으로도 종묘와 농약, 농기계 등 현장 밀착형 실의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기자

강성남 담양문화원장, 한국아동문화작가상 수상

담양문화원은 “시인이자 아동문학가로 활동 중인 강성남(사진 가운데) 담양문화원장이 최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열린 (사)한국아동문학회 시상식에서 동시 부문 작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2003년 아동문학세상에 동시로 등단한 강 원장은 시와 수필, 시조 등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문학적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소파문학상 ▲전남문화상 등을 휩쓸었다. 지난해에는 담양군이 주관한 ‘제13회 송순문학상’ 대상을 석권하며 지역 문단의 거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강 원장은 한국아동문학회 부이사장과 광주문인협회 부회장 등을 맡아 문학 저변 확대에 헌신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동시집 ‘하



안미소’, 시조집 ‘흑백사진’ 등이 있다. 강성남 원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아동문학이 지닌 책임과 가능성을 깊이 되새기고, 아이들의 삶 가까이에서 숨쉬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작품으로 한국 아동문학의 내일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기자

조선대, 2025학년도 우수 교육활동 교원 30명 시상

조선대학교는 “최근 ‘2025학년도 ABT 시상식’을 열고 지난 한 해 우수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원 30명을 시상했다”고 4일 밝혔다.

ABT(Award for the Best Teacher) 시상식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수활동의 동기 부여와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임교원은 수업평가(40%), CQI 작성 여부(5%), 교육 개선 활동 참여(10%), 연구지도(20%), 기타 교육 부분 학생지도 활동(25%)을 기준으로 평가됐으며 ▲공학계 5명 ▲예·체능계 5명 ▲사회계 3명 ▲의·치·약학계 2명 ▲이학계 2명 ▲의·치의학임상계 1명 ▲인문계 2명으로



총 20명이 선정됐다. 비전임교원은 수업평가(60%), CQI 작성 여부(20%), 교육 개선 활동 참여(20%)를 기준으로 ▲사회계 3명 ▲의·치·약학계 1명 ▲인문계 3명 ▲예·체능계 1명 ▲공학계 1명 ▲이학계 1명으로 총 10명이 선정됐다. /박선욱기자

호남대, 쌀 소비 활성화 ‘농림부장관상’

호남대학교는 “최근 의식조리베이커리학과 교수와 대학원 박사 졸업생들이 쌀 소비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수상의 주인공은 최상호 의식조리베이커리학과 교수와 대학원 박사 졸업생 최용환(호남빵집 대표)씨, 이창민(하레하레과자집 대표)씨다.

최상호 교수는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부회장, 한국제과제빵교수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제과·제빵 분야 발전을 위해 제과제빵 전문서적 20여권을 저술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박선욱기자



광주 북부소방, 소방전술능력 평가

광주 북부소방서는 4일 “오는 12일까지 화재진압대원을 대상으로 팀 단위 소방전술능력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는 1번 관장수, 2·3번 관장보조, 운전원 등 4명이 한 팀을 이뤄 ‘화재진압 4인조법’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화복 착용과 차량 탑승을 시작으로 방수와 사다리 작업 등 실제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소방전술을 평가지표에 따라 점검한다.

조현환 북부소방서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팀워크와 현장 대응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용기자

인사

- 광주시 ◇3급 전보 ▲통합공공미래도시 본부장 소진호 ▲문화체육실장 황인재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 전은욱
- ◇4급 전보 ▲혁신평가담당관 김남희 ▲국제교류담당관 장인숙 ▲비서실장 임대진 ▲선임비서관 김현숙 ▲시민소통과장 김영규 ▲5·18민주과장 박용범 ▲5·18민주화운동50주년기획담당 여경희 ▲AI반도체과장 조현호 ▲통합기획과장 정소라 ▲통합지원과장 김대중 ▲대의협력본부장 정진국 ▲미래도시기획담당 유충석 ▲군공광건설담당장 김경수